

JTS

VOL.123
2017.0102

A large group of school children in maroon uniforms are running on a grassy field. The children are of various ages and are captured in motion, some looking towards the camera and others looking ahead. The uniforms consist of maroon V-neck sweaters over collared shirts and dark brown trousers or skirts. The background is filled with more children, creating a sense of a large group activity.

JTS India

"하늘 뿔 셋 넷!"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두 모인 조희 시간. 다 같이 몸풀기 제자리
걸음을 걸지만, 바라보는 곳은 제각각입니다.



7



13



19

Contents

02 신년사

해외소식

04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행복한 시간 - 조혜림
필리핀 활동 소식

13 나마스떼, 동게스와리(인도)

인도 활동 소식

국내소식

15 함께 나누는 사랑

미소가 아름다운 여인 - 유현주

16 함께 하는 사람들

길벗과 함께한 2016년 연말 명동 거리모금
한 해의 마무리를 모두가 함께 - 신인숙
국내 활동 소식

24 나눔회원소식

기부소식 / 후원인의소리 / 일시후원금
미국JTS후원금 / 나눔저금통현황

퍼낸날 2017. 2. 6 퍼낸이 법륜 만든지 박지나, 김기진 퍼낸터 JTS
도운이 현희린, 최경순, 윤미옥, 신인환, 박종화, 김희선, 권지연, 김영숙, 신지연, 김옥희, 임금이, 김명순
디자인·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주 소 06653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서초동) 전화 (02)587-8756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 jts@jtsint.org 홈페이지 www.jts.or.kr

지난해에도 JTS에 변함없는 사랑과 정성을 베풀어 주신 후원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유년 새해 인사 올립니다.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와 경제적 불황, 가중된 실업난 등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회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정성 어린 후원 덕분에 JTS는 국가와 인종, 종교와 이념을 뛰어넘어 가난과 질병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인도, 필리핀 등 기존 해외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 의료 부문 등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북한과 중국, 네팔 등 재난지역에서는 긴급구호 및 피해복구사업을 실행하였습니다.

인도 등게스와리 수자타아카데미를 중심으로 꾸준히 활동해온 인도JTS는 20여 년간 한국인 활동가 중심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작년부터는 수자타아카데미 출신 인도 현지인 활동가 중심으로 운영구조를 전환하였습니다. 현지인 활동가가 팀장이 되어, 교육, 의료, 마을개발 등 부문별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현지인 자립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서는 한해였습니다.

15년째 민다나오 분쟁지역에서 학교건축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필리핀JTS는, 지난해에도 수밀라오 지역에 장애인특수학교와 기숙사를, 마긴다나오 이슬람 지역에 초등학교를 건설하여 소외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습니다. 재난지역 긴급복구사업으로는 2015년 지진 피해를 크게 입은 네팔 자낙푸르구 라메즈하프 현의 산골 마을에 2개 학교건축을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9월 초 대홍수로 극심한 수해를 입은 두만강 유역 중국 동포들과 북한 수재민들에게 긴급구호 식량과 의류 등 생필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남북관계의 특수한 사정상 북한지역 수재민에 대한 지원활동은 미국JTS가 교민들을 중심으로 국내외 후원자들의 정성을 모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해외사업뿐만 아니라 국내사업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해,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지원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설립 2년 차에 접어든 JTS안산다문화센터도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인들에 대한 한글 교육사업 등 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설립목적 달성에 한 발짝 다가선 한해였습니다.

수년째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은 지난해에도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반드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회원여러분들의 따뜻한 정성이 북한 주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굶주리고 고통받는 세계 이웃을 생각하며, 재능기부와 재정적 후원을 아끼지 않는 회원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하면서 희망의 빛은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매서운 한파 끝에 실려 올 새봄의 훈풍을 기대하며 그 따뜻한 기운이 회원님들의 가정에도 늘 함께하여, 보람과 행복이 가득한 정유년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丁酉年 새해 아침
JTS 이사장 범륜 함장

해외소식
필리핀
살라맛, 민다나오



4
2017 JAN.-FEB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행복한 시간

교육지원 사업 이야기

필리핀의 2016~2017년 학기 개학과 함께 시작된 교육지원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가까운 학교는 JTS센터에서 도보로 10분, 가장 먼 학교는 차로 8시간. 이렇게 민다나오 전역을 누비며 JTS가 지은 30여 개 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만났다.

글쓴이 필리핀JTS·조혜림 활동가



깔랑아난 아이들의 감사 공연의 마무리로 THANK YOU JTS를 높이 들어 보이는 아이들

학생이 아닌 한 명의 일꾼

2016년 6월 14일, 필리핀의 모든 학교가 2016~2017년 학기를 시작했다. 새학기가 3월에 시작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필리핀은 4월에 학기를 마치고 6월에 새 학년을 시작한다. 작년엔 1학년을 다녔다면 당연히 올해 2학년을 다니게 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곳은 한 달 동안의 등록 기간을 거쳐 학교에 재등록을 한다. 왜 한 달씩이나 등록 기간을 주는지 궁금해서 학교 선생님에게 물어봤다. 이유는 간단했다. 가정의 경제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이유로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농사가 주업인 이곳에서는 아이들도 일꾼이다.

그래서인지 결석도 잦다. 씨앗 심기, 풀 매기, 수확, 건조까지. 아이들의 손이 필요한 곳이 참 많다. 그래서 농번기가 되면 결석률이 30%를 넘는다. 법륜 이사장님께서 준 공식 때마다 농번기에 아이들을 결석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하시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이곳 필리핀 민다나오에서는 아이들이 다 일꾼이다. 초등학교 1학년만 되어도 짐을 번쩍번쩍 잘 들고 간다. 초등학교 5~6학년이 되면 성인만큼 힘이 세져, 아주 무거운 상자도 잘 든다. 학용품 같은 지원 물품을 배달하다 보면 우리나라와 아주 다른 풍경이 연출된다. 다물룩의 한 학교를 방문할 때였다. 학용품 상자를 나르러 아버지들이 말을 타고 오는데, 아이들은 그 뒤를 걸어서 온다. 그리곤 아이들은 상자를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걸쳐 메고 걸어서 돌아가고, 아버지들은 다시 말을 타고 유유히 돌아간다. 아이들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들어주지도 않는다. 너희가 쓸 학용품이니 너희가 들어야 한다고 한다.



잘 가라고 인사해주는 키한아이 학부모

고맙고, 고맙고, 고맙습니다

7월 중순까지의 등록 기간이 끝나고, 작년에 받아둔 연락처를 가지고 각 학교 교사에게 연락했다. 올해도 학용품을 지원하려고 하니 학생 정보를 달라는 말에 교사들은 기뻐했다. 그렇게 8월 24일 수요일, 2016년 3월에 준공한 마닐로폴티치 군의 길랑길랑 면에 속한 키한아이 학교와 콘솔라시온 학교를 시작으로 학용품을 지원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학용품을 지원한 키한아이 학교와 콘솔라시온 학교에서는 학용품과 교복 전달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필리핀 국가 제창,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과 학생들의 공연, 학부모 대표 인사, 간식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프로그램이었다. 그중 학부모 대표의 인사말이 기억에 남는다.

“2015년, 이 작은 마을 키한아이에 학교를 지어준다고 했을 때 너무 기뻐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차도 다닐 수도 없고 전기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2015년 학교 건축을 시작하면서 군수님은 불도저로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2016년 학교가 지어졌습니다. 저희는 학교가 생겨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JTS가 저희를 잊지 않고 또 방문해서 이렇게 교복과 학용품을 주었습니다. 학교를 지어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들은 교복과 학用品을 살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JTS가 계속 저희 마을을 도와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문하는 학교 마다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작은 축제가 열린다. 학교를 지어준 것도 고마운데, 잊지 않고 찾아와서 학用品을 전해준다며 주민들은 JTS 활동가들에게 크게 고마워한다. 사실 JTS의 후원자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하는 감사 인사인데 대신 받게 되어 송구스럽지만, 잘 전달했다는 생각에 마음은 뿌듯하다.

나에게 가장 좋은 옷

필리핀 JTS 이원주 대표님께서 기부해주신 교복은 작년에 이미 교복을 지원했던 22개 학교를 제외하고 2016년에 새롭게 학교를 연 알라윈, 가가후만, 키한아이, 콘솔라시온 학교와 작년에 교복을 지급하지 못했던 빅바니실론 학교에 지원했다.



교복을 입고 더 예뻐진 산마테오 여학생들

JTS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옷은 대부분 변변치 않다. 언니 오빠에게 물려받았거나, 중고 옷가게인 ‘오카이 오카이’에서 산 옷들이 대부분이다. 그마저도 성한 옷을 입고 있는 아이는 전체의 절반쯤이고, 새 옷을 입은 아이는 거의 없다. 그런 아이들에게 JTS가 지원하는 교복은 가장 좋은 옷이다. 모든 학생이 교복을 꼭 입어야 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곳은 교복이 필수가 아니다. 물론 도시의 웬만한 학교 아이들은 모두 교복을 입고 있지만, 우리 학교의 학부모들은 한 벌에 한국 돈으로 17,500원 정도 하는 교복을 사줄 여유가 없다.

여학생들은 노란색 셔츠에 감청색 체크무늬 치마, 남학생들은 하늘색 셔츠에 감청색 반바지를 입고 나면, 다들 너무 예쁘고 잘생겨 보인다.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나면 연신 “구야빠(예쁘다)!, 구야뽀(잘생겼다)!”를 연발하며 옷이 날개라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교복은 아이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다. 자녀들이 번듯하게 교복 입은 모습을 보며, 옷 매무새를 교쳐주며 부모님들도 환하게 웃는다. 심지어 몇몇 학부모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본인들이 다니지 못했던 학교를, 교복을 입고 다니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는 상상이 잘 안되지만, 그들의 표정으로 정말 큰 기쁨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동화책에 신난 수밀라오 아이들

동화책 한 권이 주는 행복

몇 해 전에 구매해 놓았지만, 여력이 되지 않아 전달하지 못했던 동화책도 20여개 학교에 지원했다. 이곳에서는 동화책 한 권 가격이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밥 한 끼가 1,500원 정도 하는것에 비하면 책값이 상당히 비싼 편이다. 그래서 JTS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집에 동화책이 한 권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주면 무척 신기해하고 좋아한다. 교과서는 전부 흑백 갱지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TV조차 없는 이곳 아이들에게, 형형색색의 그림이 그려진 동화책은 단순한 책 이상의 의미가 있다.

크리스마스 전날, 2016년 12월에 준공한 수밀라오 군 특수학교에 산타 할아버지처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동화책을 선물했다. 선물 상자에서 동화책을 직접 꺼내며 아이들은 무척 행복해 했다. 아이들은 동화책을 한 권씩 소중하게 가슴에 꼭 끌어안기도 하고, 신이 나서 엉덩이를 흔들며 춤도 추기도 했다.

리코더가 있는 교실

몇 해 전, 한국JTS의 캠페인을 통해 후원자분들께서 리코더, 멜로디언, 탬버린, 캐스터네츠, 심벌즈를 보내주신 적이 있었다. 필리핀은 악기가 비싸고 교사들도 악기를 다룰 줄 몰라, 음악 시간에는 노래만 배우고 부르는 것이 전부다. 교육대학 과정에 악기를 다루는 강의가 따로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교사는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악기를 잘 다루는 교사에게 한국에서 전달 받은 리코더와 멜로디언을 한 반에서 사용할 만큼 지원했다. 수밀라오와 딸라각의 특수학교에는 탬버린, 캐스터네츠, 심벌즈 등 장애 아동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악기를 지원했다. 생전 처음 다뤄보는 악기에 아이들은 마냥 신기해하며 연신 연주하기에 바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는 날 깔랑야난 학교를 방문했다. 깔랑야난은 부키드논 주 바용온 군에 있는 원주민 산골 마을로, 2003년 필리핀JTS가 첫 사업을 시작한 곳이다. 이곳 학교에 JTS가 처음 방문했을 때, 아이들은 짓다 만 교실의 흙바닥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방문 이후 필리핀JTS 대표였던 도동 씨가 주민들과 회의를 거쳐 이곳에 학교를 건축했다.

학교에 들어서는 JTS 활동가들을 보자마자 교장 선생님은 “조인투게더 소사이어티”라며, 오랜 벗을 만난 듯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학용품 전달식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중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원주민을 위한 사회 운동을 하셨습니다. 원주민을 위한 일에 워낙 헌신적이었고, 가족과 집안일은 등한시 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15살 무렵 사회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시겠다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고, 원망했습니다. 깔랑아난 학교 보수는 아버지가 바랑가이 캡틴(면장)이 되시고 난 후 처음으로 하신 프로젝트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저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교직 생활을 22년이나 하고 난 후에야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훌륭한 분이셨고, 원주민들의 행복과 권익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아버지는 몇 해 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기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 묘에 찾아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곳 깔랑아난에서 교장을 하면서 JTS를 만나기를 항상 희망하며, 하나님께 JTS 활동가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JTS 활동가로부터 학교를 방문한다는 전화를 받고 떨 듯이 기뻐했습니다. 저는 내년에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야 해서, 올해가 JTS 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JTS 같은 NGO가 있어서 원주민들의 삶은 더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 얘기를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얘기에 울컥해 하는 깔랑아난 교장 선생님

어느덧 마무리

30여 곳의 JTS 학교 방문은, 이제 오버루킹 학교 한 곳만을 남겨두고 있다. 처음에는 몇 명 되지도 않는 활동가들이 과연 이 모든 학교를 방문할 수 있을까 걱정이었다. 학교에 방문해서 학용품을 나눠주는 시간은 길어야 1시간 정도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은 곱절 이상 걸린다. 교사에게 연락해서 받은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한 학용품을 구입해서 학년별로 포장하고, 차로 갈 수 없는 곳은 비가 올 것을 대비해 물품을 비닐로 포장한다. 학교를 다녀온 후에는 여분으로 챙겼던 학용품을 정리하고 방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제서야 한 학교의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마무리된다.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교육지원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학용품 지원을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다물록 시를 방문했을 때 교사들로부터 요청 받은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2017년 1월 22부터 24일 까지 열릴 제 6차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선생님들이 더 행복해지고, 그 에너지가 아이들의 행복과 지역 주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마긴다나오 따뿌간 초등학교 준공식

이슬람 자치주의 세력인 모로이슬람해방 전선(MILF)과 필리핀 정부의 대립은 필리핀 내 대표적인 갈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MILF 본부가 있는 민다나오 섬 남부 마긴다나오 지역에 JTS가 올 7월부터 지어온 초등학교가 완공되었습니다. JTS는 지역 평화에 보탬이 되고자 2007년 MILF와 첫 교류를 하였고, 이후 2015년 이사장 법륜스님과 MILF 부의장이 직접 교육지원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번에 그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수밀라오 장애인 특수학교와 기숙사 준공식

2016년 6월부터 시작된 수밀라오 장애인 특수학교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학교는 장애아동의 활동을 고려해 실내체육 공간과 교실별 화장실을 만들었고, 맞춤 제작한 책상과 교육 기자재를 갖췄습니다. 학교와 함께 건축한 기숙사도 아이들의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하였고, 침실과 식당에 설치된 가구도 장애아동에 맞도록 갖췄습니다. 수밀라오 지역 장애아동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송코 따굴람봉 교육관 보수 완료 기념식

12월 6일, 송코 따굴람봉 교육관의 보수공사가 끝났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에 JTS 이사장 법륜스님과 여러 손님이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은 딸란딕 부족답게 화려한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목걸이를 걸어주며 환영했습니다. 가위 대신 부족 전통의 커다란 머리 장식구로 리본 커팅식을 진행한 다음, 송코 원주민들이 준비한 간식을 들며 전통문화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제 6차 JTS 교사 연수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JTS센터에서 제 6차 교사 연수를 진행합니다. 연수에는 다물록 군 소재 12개 JTS학교의 교사 5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수의 주제는 '더 효율적인 가르침을 위한 문화 다양성 이해'로 잡았습니다. 무슬림, 가톨릭, 원주민 문화 속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수자타아카데미 운동회 개최

수자타아카데미에서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운동회날 아침에는 교문을 열기도 전에 많은 학생이 등교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리기, 장애물 경기, 축구, 크리켓 등 다양한 종목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북과 팽과리를 두드리는 소리와 응원의 함성이 흥을 돋우며 하루종일 등게스와리 전체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학생과 교사 대상 내복 지급

작년보다 빨리 찾아온 겨울은, 그 위세가 제법 매섭습니다. 가진 옷이 적다 보니 겹옷을 빨고 나면, 입을 옷이 없어 얇은 셔츠만 입고 오거나 반팔을 입고 오기도 하고, 심지어 맨다리에 교복 치마만 입고 등교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도통한 내복을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지급했습니다. 내복을 입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아주 따뜻하다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바카 병원 새 단장

지바카 병원이 새 단장을 했습니다. 병원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시설 보완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용 중인 가구와 집기를 수리하고, 필요한 곳에는 깔끔하게 페인트칠을 새로 했습니다. 병원 건물 외벽도 새로 칠했습니다. 실내 구조도 변경하여 사무실이 더 넓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낡고 오래된 환자용 침대를 새 침대로 교체하여, 더 쾌적한 환경에서 환자들이 치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자타아카데미 학생 및 교사 건강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년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수자타아카데미 전교생과 까나홀 분교 학생, 그리고 교사들과 스태프 등 모두 526명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키와 몸무게를 재고, 청력검사, 색맹 및 시력검사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처방을 하고, 2차 검진이 필요한 학생들은 외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바카병원은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과 스태프들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마지막 극빈자 구호

2016년 4차 극빈자 구호를 진행했습니다. 대상자는 총 61명으로, 각각 쌀 20~25kg과 담요 1장을 지원했습니다. 걸어서 산을 넘어 다니는 사람들을 고려해 산 앞마을은 12월 20일, 산 뒷마을은 21일로 나누어서 지원했습니다. 산 뒷마을은 까나홀 분교에서 지원 물품을 나눠줬는데, 이곳까지 찾아오기 어려운 노인에게는 차로 돌아가는 길에 직접 전달해야 했습니다.



동게스와리의 새 센서스 카드

마을개발팀은 2015년 진행한 동게스와리 인구조사를 마무리하고, 센서스 카드(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가구별 지급하는 카드)를 새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센서스 카드를 제작하기 위해 가야부터 델리까지 일 년여간 많은 곳을 조사했지만, 카드 커버를 제작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해서 제작이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까운 가야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했고, 마침내 제작이 가능한 곳을 찾았습니다. 카드 커버가 나온 날, 커버를 찾아오는 마을개발 팀장의 발걸음이 참 가볍습니다. 현재 동게스와리에는 총 2,055가구 10,410명이 살고 있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여인 캄보디아 출신의 톡다비 씨

글쓴이 JTS안산다문화센터·유현주 활동가

톡다비 씨는 캄보디아에서 결혼이민을 온 다문화인입니다. 두 해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지금은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며 어린 두 남매를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힘들게 번 돈의 일부는, 고향에 계신 엄마와 아픈 여동생을 위한 생활비로 송금한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두 아이와 생활하는 집은, 옷 넣을 서랍장 하나 없어 중이상자와 바구니에 옷을 켜켜이 쌓아 놓은, 옷풍이 심한 작은 단칸방입니다.

안산다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원장님과의 생활상담 중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톡다비씨가 야간근무를 하는 날에는 두 자녀를 센터에서 돌봐주고 있습니다. JTS 봉사자들은 톡다비씨의 집을 방문하여 방한 텐트를 설치하고, 벽에는 냉기를 막아주는 단열 벽지로 도배도 해주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쁜 일정에, 끼니를 제때 챙겨 먹지 못해 근무 중에 쓰러지는 일이 잦은 그녀였지만, 지금은 아이들 걱정도 줄었고, 집도 조금이나마 나아진 데다, 한부모 가정 도시락 배달을 신청하여 매일 아침저녁으로 두 번, 도시락이 집으로 배달되어 한결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톡다비씨는 마음도 예쁘고 성격은 더할 나위 없이 밝아, 센터의 봉사자들에게 늘 환한 미소로 대합니다. 그녀의 환한 미소를 보고 있으면, 가족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겪는 남편의 빈자리와 궁핍한 생활도, 삶에서 행복을 찾는데 장애가 될 수 없음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16

2017 JAN.-FEB

줍주리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길벗과 함께한 2016년 연말 명동 거리모금

맑고 포근했던 2016년 12월 17일, 서울 명동 일대에서 길벗과 JTS가 함께한 연말 거리모금 행사가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의 수행 공동체인 '길벗'과 한국JTS는 지구촌 모든 아이를 내 아이처럼 생각하고 기아와 질병, 문맹을 퇴치하자는 취지로, 매년 어린이날과 성탄절 즈음에 명동에서 함께 거리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거리모금 캠페인에는 노희경 작가님과 배우 배종옥 씨, JTS 홍보대사 한지민 씨를 비롯하여, 배우 윤소이, 박진희, 임세미, 고보결, 이재우, 한정현, 최문경, 차중호, 백승도, 백은경, 이자은, 이정구, 구분영, 이병훈, 유장영 씨가 참석해주셨고, 모델 이혜정, 김충호, 한현민, 정대현, 이명성, 이동준 씨가 거리모금에 함께해주셨습니다. 보컬리스트 난아진씨와 인디 통기타 가수 임현정 씨, 뮤지컬 가수 박지연씨도 무대에서의 멋진 공연 후 거리모금에 함께해주셨습니다.



거리모금에 함께해주신 분들과 더불어, 방송인 김병조 씨와 뮤지컬배우 김형주 씨 부자는 맛깔나는 진행으로 모금 캠페인을 시작부터 끝까지 잘 이끌어주셨습니다. 굶주리는 지구촌 아이들을 기아와 질병, 문맹 상황에서 벗어나게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인 참가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거리 곳곳에 넘쳐 흘렀던 날이었습니다.

이날 모금된 돈은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갈등으로 교육의 기회를 잃은 아시아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및 영양부족과 질병에 노출된 아이들을 위한 모자보건, 건강증진 사업에 고루 사용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모금에 참여해주신 길벗과 JTS의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거리모금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8

2017 JAN.-FEB







20

2017 JAN.-FEB

한 해의 마무리를 모두가 함께 울산 JTS 송년 거리모금 캠페인

찬 겨울바람이 불던 지난 12월 23일과 24일, 울산지부에서는 이틀에 걸쳐 활동가 가족과 지인,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거리모금 캠페인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글쓴이 JTS울산지부·신인숙 활동가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손발은 시렸지만, JTS 송년 거리모금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캠페인 담당자들은 미리 모금 장소에 모여, 모금을 준비하고 거리모금 지침을 읽으며 모금 방법도 익혔습니다. 모금은 2인 1조로 나누어 한 시간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 마음 따뜻한 현장에서 진행했던 거리모금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캠페인에 함께하고 싶었지만 참여할 기회가 되질 않아 이번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자꾸 하다 보니 용기가 생겨 말문이 트였고, 천원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는 모금함을 보면 천원이라도 넣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러 봉사자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나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모금액이 적어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하고 딸과 함께해서 좋았고 생각보다 만원 짜리를 넣어 주는 분들이 꽤 있어 놀라웠고 감사했습니다.”

“즐거운 경험이었고 천원에 대한 감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500원을 넣어 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새삼 500원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금함에 넣어 주시는 한 분 한 분도 감사했지만, 나는 지금까지 과연 몇 번이나 모금함에 돈을 넣었는지 나를 돌아보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덤덤했는데 처음 모금함에 돈을 넣어 주시는 분께 감동하여 눈물이 왈칵 났고 정말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 기회를 주는 것도 뜻깊은 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금해 주시는 분들이 인심이 좋은 것 같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모금 활동을 하고 나니 보람이 있고, 앞으로는 다른 분들이 모금활동을 할 때 그냥 지나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나누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년 만에 참석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이들이 쳐다볼 때 눈이 마주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참여하게 되었는데 모금 활동을 할 때 내 마음이 즐거워짐을 알았고 앞으로 이런 일에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고 모금활동을 하니 진심이 더 담기는 것 같고, 함께 하니 용기도 나고 재미있었고, 함께 해서 편안하고 기쁘고 감동을 하였습니다. 눈이 마주친 사람들이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모금을 해주고 갈 때는 참 감사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에, 지구촌의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함께해주신 멋지고 마음 따뜻한 봉사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 한다면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음을 압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나와 내 가족의 행복만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삶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북한 두만강 유역 홍수피해 긴급구호

미국JTS는 지난해 9월 발생한 두만강 유역 홍수 피해에 대한 긴급구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피해지역의 특성에 맞게, 구호품은 두툼한 이불과 점퍼, 내의를 포함해서 당분간 먹을 수 있는 식량과 주방 식기를 준비했습니다. 구호품은 2016년 12월에 북한에 전달되었으며, 1월 중 분배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국내 취약계층 지원사업 진행상황

2016년 10월 협약식을 시작으로 진행중인 국내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부모가정 및 위기가정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 2,000가구에 지역상품권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서울시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은 2차례 지원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2018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원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사업은 현재 2차례 지원하였고, 오는 3월 까지 3회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북 문경시의 저소득층 월동비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 701가구에 월동비 지원을 완료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추가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결식아동 영양꾸러미 및 한부모가정 생필품 구입비 지원
 국내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하나로, 2016년 12월 16일에 서울 서초구와 협약을 맺고 결식아동과 한부모가정을 지원했습니다. 다른 곳보다 빈부 격차가 커서, 저소득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다고 하는 서초구에, 방학에 밥을 굶게 되는 아이들을 위한 영양꾸러미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한부모 가정을 위한 생필품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JTS안산다문화센터 나비장터
 JTS안산다문화센터는 2016년 12월 4일, 안산 외국인주민센터 옆 야외 공연장에서 4개월만에 나비장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나비장터에는 24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여 전국에서 기부 받은 물품을 장터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전달하고, 자율 기부금 295,700원을 모금했습니다.



문경 가은읍 불우이웃 라면 지원
 1월 20일, 설을 맞이하여 문경 가은읍 일대 30개 동·리의 불우 이웃들을 대상으로 라면 200상자를 지원했습니다. 이 날 지원된 라면은 가은읍 이장단 회의를 통해 각리 별로 배분되고, 꼭 필요한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 신규 파견 활동가)

- 인도** 보광, 뿌리양카, 정동표, 김윤미, 박세환, 백은하, *신예솔
- 필리핀** 안병주, 송치현, 조혜림, 김상훈

기부소식



호거산 운문사의 학용품 기부

호거산 운문사 여러분께서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을 위해 필기구와 노트, 필통 등 다양한 학용품과 간식거리를 JTS에 기부해주셨습니다. 기부해주신 물품은 정토회 성지순례단 편으로 인도 수자타아카데미에 전달했습니다.

해외 정토법당 겨울 의류 기부

세계 각지의 정토법당에서 목도리와 장갑 등 겨울 의류를 모아 기부해주셨습니다. 기부해주신 의류는 정토회 성지순례단 편으로 전달하여, 아이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색상의 겨울 의류 덕분에 개성이 넘치는 수자타아카데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4

2017 JAN.-FEB



태국절 새해맞이 법회 후 JTS 후원

JTS안산다문화센터 맞은 편에 있는 태국절 '담마제따야람'의 스님은 안산다문화센터 한국어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2017년을 맞이하여 스님과 태국 출신 다문화인들이 안산다문화센터 강당을 빌려 새해맞이 법회를 열고, 후원금을 JTS에 전달해 주셨습니다.

동화작가 이가을님 손뜨개 모자 기부

동화작가 이가을님께서 직접 손으로 뜬 모자 400개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작가님은 지금도 시간이 날때마다 북한 아이들을 생각하며 모자를 뜨신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이 모자들을 북한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원인의 소리

“

굵은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아기 돌 키우는 엄마입니다.
구규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 되기를 바랍니다.
권해수

곧 태어날 제 아이와 같이 전 세계 아이들이
사랑받길 바랍니다.
김우순

김창래 영가님의 명복 기원!!!
김창래

여주 후인 이동열 영가님과 모든 영가님들이
좋은 부모, 훌륭한 스승, 깨끗한 국토에 나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남경현

굵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작고 3학년 3반

북한 동포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며 좋겠습니다.
박진희

최근 재난을 당한 해외원조에 사용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호영

최서연 어린이가 북한 어린이를 돕고 싶어요.
오푸름

수능 100일 기도 회향합니다.
유숙향

지민이가 열심히 뛰는데 내가 손 놓고 있을 수 있나.
이찬서

우리 곁을 떠나신 장모님 윤연옥님을 추모하며
윤연옥님의 이름으로 기부에 동참합니다.
이창범

주진택님의 영가 위하여 올립니다.
정백기

결혼기념일을 기념하여 후원합니다. 좋은 일에
써주세요.
퇴촌백세한의원

어머니 고 정명악님의 영가 왕생극락을 발원합니다.
황선희

평소에 가난으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안타까워하시며 꾸준히 마음을 내신
어머니 박순희님의 유지를 받들어 후원합니다.
권미선

”

일시후원금 (2016. 11. 01. ~ 2016. 12. 31.)

북한

강경림 강미선 강은철 구규리 권수영 김경남 김경미 김경미 김남길 김덕환 김도환 김미식 김민호 김보영 김소영 김승희 김재혁 김정희 김진환 동작고3학년3반 박소연 박소영 박완임 박진희 백경화 변정욱 북한돕기 서범수 서양숙 신재영 신종섭 엄인용 엄인용 오영준 오희름 우선영 유소영 유숙향 이다연 이승연 이요한 이준석 이진일 이호식 이희자 임수현 자기관띠아아 장준태 정민호 정희숙 조경화 조수진 한그루공방(김홍임) 한성욱 허대영 허용철

인도

권성수 김경남 김경란 김보영 김소영 김승희 김용덕 김진환 김창래 김희선 노나윤 동작고3학년3반 박근 박송자 백경화 서양숙 서현주 소진호 손월연 신병남 신재영 신종섭 염희환 유현지 이다연 이성민 이수빈 이승연 이재민 이주형 이진일 임규연 임동영.임동기 임보경 임수현 장재학 정민호 정태경 조경화 조현숙 홍준표

필리핀

김경남 김도환 김보영 김소영 김승희 김진환 눈비산마을 동작고3학년3반 박송자 백경화 서양숙 신재영 신종섭 안영민 유현지 이다연 이성민 이승연 이진일 임규연 임수현 정민호 조경화

전체

6429 (주)브이엠에스 (주)유진코메탈 1127행복강좌 감사합니다 강경란 강미선 강민경 강성희 강수정 강순희 강정숙 고광석 익산대지 고대사대부중 고박은희 고선아 고성동광1학년 고성대지 고영미6408 고은정 구분현 구영희 국제구호 권경영 권기철 권도현 권영선 권영세 권영애(gs25덕) 권은하 권점숙 권해수 권혁경 금삼승민승필 기덕규 기정임 갈벗 김경남 김경란 김경태 김경하웨미리마트 김경희98914 김경희부천대지 김광선 김국희 김기섭 김나경 김남수 김남순 부천대지 김남희 김대광 김대환9955 김덕영 김덕주 김도율7906 김동우 김동재(장유정) 김리옥 김명호 김문희 김미성 김미숙 김미영 김미정 김미현 김민자8770 김민조 김민지 김민호 김부들 김선호 김선희 김선희 부천대지 김성민 김성자 김소영 김수경 김수경마포 1702 김수녀 김수아 김수연 김수윤 김승주 김승준 경주 김승희 김승희 김시현 김여진양평대지 김연옥 김연옥 김영기 김영선 김명섭부천대지 김영민 김영주9792 김영희 김용현 김우순 김우출영주대지 김운하 김유주 김윤환 김은숙 김은정 김은주 김은희종로대지 김용 김용서 김인숙 김인영 김재옥 김재운영가 김재웅 김재미 김정민 김정선지바가 김정숙 김정순대지 김정화 김중년0256 김종률 김준업 김준형9542 김중영 김지숙 김지식 김지아 김지영 김지현 김지훈 김진욱 김진환 김찬우2267 김창익 김태훈 김향례부천대지 김현서 김희연 김희화6039 나도연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비관세을 나연우 남경현 남미란 노나윤 노승주부천대지 노임남(노유진) 노지오 노하진 노희경 도성화 동래두복후원금 두리교우파워시스템 류명수 류분한3564 류수진 류진학 문덕권 문미라9597 문서준 문윤기 문혜정 미소원노유진 민인규 박경아1717 박경자 박경진 박계만 박관자 박근택 박동원 박미라 박미혜 박상철 박성민 박성욱 박소연 박수현 박순양 박영기 박영섭 박영환 박원임 박외자 박원조 박재호 박정섭 박정숙4105 박정순범무사 박정용 박정원부천대지 박정자 박정진9124 박종미 박종희 박주하 박지윤 박진옥 박현진 박화자 반미정 방문희 방지은0665 배병문 배성호 배희진 백경화 백승완 백현주 배우호텔하브점 변동해 부사이정숙 부천시부명중0236 북한 삼성중학교 서동출 서동화 서민경 서민규남양주 서상규 서승희 서양숙 서울대 AMP7기 서정영 서주덕 서초헌책판매수익금 서형섭 서희경 성시원 성지연 성현오 세일관광(주) 센터금요행복 손동숙 손선미 손진우 송문영 송선진 송영주 송종수 송준호 수고하세요 시드니정토회 신광섭영주대지 신동근 신동현 신수희 신재영 신재은 신종섭 신주현 심상석3564 아이캔들라 이대광고 안병주 안산다문화(유애경)센터 안송연 안순희 안윤수 안재만 안치애 양승돈 양윤건 양진영0622 양평서차음식 양호영 어윤강 여은화 여정화 여꽃회 여희현 예쁜아이어린이 오미옥11월분 오윤경 오재환 왕옥선 우선영 우조원 원나눔 원상희 원선호 원철용 유경민 유경호 유규자 유상봉 유선희 유소영 유승자 유애경 유재숙부천대지 유재영수정 유정훈 유진영 유현주 윤경미 윤경옥 윤미리 윤병덕0001 윤복남 윤선에 윤수성 윤종완 윤지연 윤태복 이강준 이경덕 이경애 이경희 이광옥 이광주 이귀숙 이길림 이다연 이덕규 이명수부천대지 이명화 이미숙 이미향 이부연 이산희 이상숙 이상은 이상철 이상훈 이선희종로대지 이소령 이수빈 이숙 이순이 이승연 이승열 이승욱 이영순 이양자 이연숙 이연순 이연희 이옥순 이원규 이요한 이영숙 아우경심재용후주 이원성 이원형 이윤숙 이윤임1629차캐장 이은정 이재란 이재선 이점순 이정여 이정연 이지연 이찬서 이창범 이창현 이춘강 이태화 이택수 이한수대지 이향선 이혜준천안 이현수 이형원 이혜경 인도 인하테크 임무승 임연자 임종덕 임진선 임춘옥 장세영 장애승 장유희 장정은 장현권 전체사업 천준우 정경아 정교필 정다혜 정명화 정민숙 정병학(최기희) 정성섭 정성채 정수영 정연우 정영지영주대지 정우석 정은중 정은희 정인규 정지화 정태경 정필숙 정현옥 정훈웅 조경화 조대영 조수미 조수진 조이연 조영자 조인숙부안대지 조재룡 조정숙 조진희군산대지 조희옥 좋은일에쓰길 주경미 주도완 주식회사세상에서 주식회사사무의마 주현희 중국에서 지은아 진주후원금 차지는 차화정 천인근 천형준 최경자 최경희 최근대2650 최동철 최문경 최병학(최기희) 최선연 최수연 최순희 최영애 최인권 최재현 최정수 최현미 최현숙 퇴촌백세한의원 편옥희 플러스4인방 필리핀 한동규 한승운 한신규 한우경 한중호 한지민 함안김용희8068 허외경 허은미 허환숙 호텔텔레즈 흥대희회구 흥동희 흥준표 홍지영 화별따따10만기부 황상모 황서규 황영애 황옥선 황옥영 황유진 황재영 후원금 EunHeeSo JTS

지지난호 누락자

민성익

미국JTS 후원금 (2016. 11. 01. ~ 2016. 12. 31.)

곽수진	노유경	어린이날 모금	임선희	Hyeok Lee
김영숙	노종숙	오선주	임선희	JJ FAMILIES LLC
박정희	대광	유미숙	장동현, 장경선	KYUNG J KIM
박종희	무주상	유승목	전보명	Lauren Carree
차지근	무주상	유주영	정기성	NEWTOPIA
고명신	문경상주대중	윤신정	정수길/홍희선	ENTERPRISES INC
고명주	바자회	이민아	정은희	Rosemary Chung
권해원	박경배	이영국	최만성	Stephany Lee
김동원	박민주	이원경	최성중	TIP J ENTERPRICES
김민선	박정희	이주희	최수영	Wonsook Park
김상진	박현숙	이지민	호주시드니정토회원	
김애경	박현숙	이학우/이영숙	A&J Seattle	
김연문	법사단	익명	Acuple Wellness Inc	
김윤진	벤쿠버회원	익명	amazon	
김재명	석은영	익명	Benevity	
김지현	심민경	임국희	Dianne Park	
김학노	심성혜	임선희	EUNGSUK YOON	



나눔저금통 현황 (2016. 11. 01. ~ 2016. 12. 31.)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나눔 저금통을 보내주시는 분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금통에 성명을 내입편이나 볼펜 등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동

강동법당 85,830 강동법당 26,930

강릉

강릉법당 120,830

강서

강서법당 18,730 강서법당 7,480

강화

강화법당 472,050

거제

거제법당 173,050

거창

거창법당 146,650

경산

경산법당 23,930 경산법당 1,093,820

경주

경주법당 123,880 경주법당 151,250

계룡

계룡법당 267,320

고성

고성동광초1학년 47,800 고성법당 55,660 고성법당 35,290 고성법당 30,000

공주

공주법당 64,000 공주법당 116,070

관악

관악법당 114,070 관악법당 52,160

광명

무명 78,580 무명 239,470

광주

광주법당 169,890 광주법당 299,910
광주법당 420,130 광주법당 99,630

구리

구리법당 91,980 구리법당 32,190

구미

구미법당 50,770 구미법당 33,610

군산

조진희 20,170

권선

권선법당 150,350

금정

금정법당 6,360 금정법당 16,570

기창

기창법당 9,540

김포

김포법당 3,680 김포법당 28,840 김포법당 52,000 김포법당 46,650 김포법당 13,540 김포법당 47,630

김해

김해법당 171,760 김해법당 138,350

남산

남산법당 47,090

남양주

광동중학교 385건 2,240,840 [1-1반 (강다현 4,710 김명중 2,250 김민정 5,200 김선기 560 김우일 10,000 김채은 11,000 문화수 5,890 배건우 5,850 배수연 7,970 서정우 12,930 신동녘 5,480 신수연 32,600 안민혁 20,090 안태영 1,080 안태훈 1,410 양미진 3,230 옹현선 6,050 유지호 5,780 유진아 3,270 윤진희 10,220 윤진희 3,520 이경민 6,260 이우석 2,630 이찬진 11,000 이채원 13,640 이채현 1,000 정유빈 5,050 정은지 1,200 조시현 1,300 천아현 2,700 허경준 3,560 황원준 1,000] 1-2반 (강수현 5,750 구도현 17,100 김도은 3,990 김수연 3,410 김신우 3,430 문준영 1,000 박범수 6,440 백지민 3,180 원유석 1,100 이근우 5,600 이신우 3,950 이예림 5,010 이태규 16,280 이형통 5,340 임성현 4,000

임희재 34,100 최승현 3,950 최영현 2,800 한규진 500 한나경 1,400 황민지 910) 1-3반 (공수현선생님 14,020 구분민 3,010 김연희 1,780 김효원 5,330 남진우 3,400 박상준 1,450 양준열 490 오동진 10,930 오소현 2,800 유연지 23,720 유연지 5,500 이나경 6,340 이나연 2,800 이아영 1,000 이인제 3,160 이지운 140 임정은 14,000 임준영 3,620 장혜륜 3,000 전준혁 300 조승연 1,040 조혜남 8,970 최유찬 3,460 최중원 3,030 최지혁 2,150] 1-4반 (강명제 2,300 강유빈 25,330 고강민 21,670 권용민 1,000 김도윤 3,410 김민섭 8,720 김서영 4,270 김수민 6,450 김유빈 9,620 김윤서 4,300 김태수 5,950 김형섭 6,380 나규원 14,510 맹지현 9,770 박나림 3,430 박병관 5,410 박준영 5,320 성운석 11,800 손지혜 18,880 유현지 10,100 이소영 3,690 일동 28,200 장지현 5,610 장호준 4,500 정민우 4,370 조영연 7,220 지준호 8,270 최민영 5,560 최예영 21,920 최은진 17,170] 1-5반 (김경나 1,460 김나영 2,300 김서현 13,380 김수정 2,630 김예랑 1,180 김유나 1,580 노지원 3,550 문예린 5,540 박민정 8,670 박민정 3,610 박서원 3,360 배지현 14,850 백승덕 3,500 서영훈 5,310 서중현 7,300 신승연 2,540 이도균 6,430 이수현 2,520 이예림 3,750 임건 11,180 최재웅 1,180] 1-6반 (강현우 1,870 고승철 1,180 김태준 950 김현규 460 박서연 1,800 박세민 10,060 박영우 1,800 오서연 2,680 전도진 5,250 조희연 2,610] 1-7반 (강다연 1,410 김민교 1,000 김민영 1,470 김민호 11,040 김범수 3,330 김서정 1,480 김수민 5,630 김우진 8,840 박성민 1,830 박재우 3,370 박현빈 2,280 안성민 3,250 유영민 5,000 이수민 5,460 이수재 1,610 이준서 2,940 이지현 3,620 이창윤 1,000 이태산 19,000 이하린 700 임재영 4,290 임지현 13,130 장은지 200 정서경 3,910 정지영 860 조예원

1,320 지만정 5,230 지연우 1,000 홍진혁 5,150) 1-8반 (고은성 1,590 권영인 1,630 김경구 2,160 김민석 1,000 김수빈 1,900 김필수 1,100 박상혁 1,820 박지민 1,330 서민영 3,000 송성빈 2,000 신해현 2,700 오서은 3,000 우지우 3,550 윤빈나 3,010 윤준영 2,270 이계민 3,540 이혜리 2,980 전지원 900 정윤정 3,590 조준휘 2,500 주선민 3,050 최다경 1,440 최동현 2,020 최봄 2,000 최한별 3,910 최희원 8,550 한민수 1,180 함민준 1,330 함은하 1,280) 2-1반 (김민주 3,900 김보미 640 김아름 11,390 김지윤 900 류준하 2,950 마일건 1,210 미영 3,440 박경은 1,320 박세은 2,250 오서현 1,400 유규미 2,130 유채린 2,100 윤다숨 3,670 이성민 6,260 이성민 8,710 이성민 13,050 이성진 6,980 이소호 1,020 이채린 1,700 이태희 2,950 임수빈 3,240 조영준 1,620 조윤지 6,300 진상우 1,390 홍솔빈 3,090) 2-2반 (강구진 1,000 김다영 4,120 김세민 4,600 김소연 4,120 김수연 270 김승찬 1,400 김준수 850 반소연 7,660 송영훈 6,100 송재은 5,310 송현호 8,680 심규민 7,120 유나연 12,580 유영완 4,540 윤무영 6,400 윤성민 2,480 이경민 6,030 이민수 4,460 이상용 6,730 이시용 1,430 이지수 9,550 이채원 920 전주현 21,810 조효신 9,700 천규민 1,280 최승희 4,460 최태원 4,600 최희원 2,530 한승이 2,750 한채원 1,880 함수연 3,660) 2-3반 (강우혁 23,200 고경은 1,080 김남기 1,210 김여은 5,040 김지윤 3,060 김태훈 2,900 김학선 3,560 김호근 3,640 문예빈 3,410 박민욱 2,000 박재준 6,300 방호식 750 서혜원 15,610 송성연 2,570 신형진 990 신혜정 6,200 원예진 880 유의택 1,510 유정현 1,740 윤소윤 2,260 이준규 14,850 이중석 1,600 이진학 3,060 정경주 6,160 조은주 5,490 최원종 3,700 허지우 1,620 현지호 1,110 홍주표 7,310) 2-4반 (구름 1,540 김민수 1,170 김성진 440 김예민 3,990 김준이 5,210 김채린 2,390 김현빈 1,470 남명준 200 박수빈 2,470 박신범 2,110 박혜린 1,520 양희수 2,740 오유경 1,110 원현진 6,830 유광원 17,580 유윤진 5,680 이슬이 3,280 이준호 20,970 이지호 12,070 전승환 150 정현희 2,280 최은아 8,080 최형준 5,480 한규미 2,660 허남현 6,870) 2-5반 (강우석 2,010 권지윤 9,870 기형준 2,950 김건

우 7,550 김민석 1,820 김성욱 7,000 김하영 4,100 박지은 6,200 서민규 900 심해원 1,700 오태한 1,150 유영민 8,780 이소민 3,890 이수빈 3,300 이해길 1,060 장혁재 1,750 정서윤 1,950 정수혜 2,630 정혜윤 3,370 최형준 3,100 현의수 1,070 황민주 2,930) 2-6반 (강민주 1,280 김다기 2,040 김수경 6,000 김우승 6,770 김윤자 4,250 김지윤 12,840 김채영 4,880 김태호 3,620 김현서 13,250 민수영 10,550 박주은 5,970 성민철 2,300 송명준 2,870 양서현 7,550 염승안 10,000 오현승 13,450 이유민 5,860 이형찬 1,060 정가현 12,810 장태훈 3,560 조남경 2,890) 2-7반 (김승이 890 김준한 7,200 송성현 5,120 신현수 9,660 양정환 830 양현준 7,600 우승원 5,230 윤보경 13,690 윤시현 5,050 이강혁 3,230 이민지 3,630 이에준 10,660 이지연 670 이재정 4,950 이재정 2,300 임세영 970 장서원 380 조훈민 1,000 차진명 11,760 최민혁 860 현주환 5,810 황고은 28,670) 3-7반 (이동건 8,600 이동건 2,760 이동건 8,120) 광동중법당 93,840 권준희 8,910 김소영선생님 13,270 무명 5,600 무명 7,210 박상엽 1,000 불교학생회 150,000 윤규민 1,000 이상훈선생님 17,110 이상균 4,250 무명 16,270 무명 21,870 무명 16,940 서덕원 20,990 서민규 15,940 서민재 26,030

내서

내서법당 151,020

노원

노원법당 81,000 노원법당 10,320 노원법당 20,000 노원법당 45,710 노원법당 45,200

달성

달성법당 114,130

대구

구문선생님 49,760 권영숙 57,010 김동욱 85,960 김성진 14,800 김춘애 20,070 나이스마트각산점2개 21,120 나이스마트법물점 10,510 대구법당2개 41,250 테레사소비센타지산점3개 31,770 무명 29,450 무명 12,980 무명 27,780 무명4개 93,820 박규호 17,720 불물대3개 76,750 서귀두 22,960 오원숙 8,410 이현호 2개 140,930 장보고마트동호동2개 27,310 지산포인트(법물동) 19,830 최

주영 10,320 케이원식자재마트올하동2개 18,810 투게더마트법물점 13,050 포인트마트각산점 16,530 포인트마트지산점 11,290 황순남 22,490

대전

대전법당 252,070

대전

대전법당 1,576,140

덕양

덕양법당 74,770

도봉

김민숙 27,000 박동숙 25,430 박인희 19,060 손지은 21,250 여승담 17,870 최성규 25,970

동대문

동대문법당 59,280 동대문법당 237,120

동래

강혜원 80,170 금정임 16,100 김명희 20,710 김영금 34,900 노영옥 18,710 류숙희 41,880 무명 55,380 무명 23,700 무명 25,730 박순천 23,980 박은미 22,560 박은미 26,900 변소영 42,150 서우출 14,500 서원옥 18,180 신순자 18,250 양경년 13,590 유명희 37,690 유명희 19,980 유은서 17,900 유은선 23,740 윤선희 26,300 이나금 189,050 이명희 26,950 이미지 43,930 이미혜 29,800 이미혜 60,920 이수정 35,900 이수정 27,930 이왕진 24,100 이은희 23,900 이화영 18,980 장수현 23,490 장숙현 25,970 조미영 19,790 조오미19,260 천미숙 32,600 최은아 17,030 허서미 39,220 허준 20,920 홍상진 35,610 황금희 37,480 황영례 19,950 황영례 17,220 황의숙 14,290 황정희 24,430 황정희 21,770

동작

동작법당 131,190

마산

국민은행 28,630 마산법당 207,370 마산법당 223,710

마포

도태형 21,850 서지연 34,300 윤지현 28,770 전연실 21,630 정성수 16,500 조인영 17,190

목포

목포법당 95,550 목포법당 107,440

목포법당 113,180

문경

최우근 30,460

밀양

밀양법당 14,130 밀양법당 71,800 밀양법당 79,830

반여

반여법당 227,490 반여법당 32,000

부사

부사법당 133,600

부안

부안법당 226,000 조인숙 61,720

부천

김경희 27,460 김남순 27,730 김선희 48,100 김영섭 16,850 김영섭 18,860 김영섭 19,400 김향례 22,340 노승주 13,920 박정원 22,980 박정원 10 부천시 부명중 387,180 유재숙 20,020 유지원 260,140 이경희 18,870 이명수 13,400

부평

김성욱 29,470 김진민 33,550 무명 2,970 무명 130,840 박옥권 22,560 신화순 19,180 심복덕 37,770 윤귀현 28,210 윤홍자 29,870 인재은 21,760 정해웅 30,820

분당

분당법당 129,300 분당법당 33,580 분당법당 103,830

사천

사천법당 108,240 사천법당 89,670

사하

김동례 21,520 김보패 14,970 김사문 33,240 김태순 16,810 김태순 19,600 김현정 13,720 노순애 3개 57,810 문유정 17,180 박애만 38,370 사하법당 262,760 윤태수 29,290 이말필3개 47,080 이유선2개 65,690 이종두 27,720 조예진 10,980 최현숙 41,690 하양순 19,950 허성란 30,280 황옥선 73,320 황옥선 51,350

상주

정남숙 17,690

서대문

김재영 85,240 무명 33,860 정유미 14,960

서면

서면법당 564,000 서면법당 630,690

서산

서산법당 39,960 서산법당 17,750

서천

양순환 39,580 한별 5,680

서초

고재호 40,200 광무연 38,050 광수경 20,660 김진숙 35,190 김진숙 24,910 나경화 18,440 무명 63,970 박현비 28,070 박한선 26,000 서병하 22,920 서초법당 817,660 서현희 24,850 신순란 52,000 오영희 9,730 원경희 17,020 유승후 32,730 유훈성 29,610 이광섭 37,480 이선화 30,000 이영란 21,720 이영배 24,070 이재은 13,240 정명주 19,230 정윤미 26,440 최병호 신경정신과 34,720 최은지 30,000 홍원희 37,360

서현

서현법당 94,600

성동

성동법당 161,280

성서

성서법당 204,600

세종

세종법당 91,280

송도

송도법당 24,770 송도법당 42,750

송파

송파법당 168,190 송파법당 118,910

송현

송현법당 189,770 송현법당 142,450

수원

무명 23,150 무명 65,640

수정

수정법당 18,360

시흥

시흥법당 197,524

신서

신서법당 36,500 신서법당 66,950

안동

안동법당 170,060

안산

안산법당 271,610 안산법당 31,930 안산다문화센터 천인근 67,200

안성

이종희 23,640

안양

김덕희 21,930 김하진 36,050 무명 19,310 무명 29,260 변민수 32,250 변인수 26,150 변인수 28,870 변인수 23,310 서성영 31,330 윤미숙 24,080 은정환 26,380 이명심 64,600

양평

김여진 30,980 양평법당 31,330

여수

여수법당 385,070

영주

김우출 36,750 신광섭 90,450 전춘우 20,110 정영자 82,170 채지영 107,730

영통

영통법당 175,150 영통법당 49,570 영통법당 22,700

육교

김옥숙 19,530 김용선 26,910 변주연 15,150 유영화 27,150 한원희 62,170

왜관

왜관법당 56,300

용인

용인법당 293,920 용인법당 284,180

울산

김경희 37,940 김도형 28,180 김시형 14,370 김진권 13,720 박상욱 32,220 이현미 21,300 정용한 62,000 정용한 42,370 탐페밀리마트 15,520

원주

곽원영 22,510 김경숙 18,490 김광수 33,440 김미숙 9,940 김미순 11,400 김한숙 34,780 남혜리 8,100 박선희 14,990 유연희 26,700 이애숙 81,410 조연옥 23,990

은평

은평법당 337,410

의정부

의정부법당 501,000 의정부법당 115,870

의창

의창법당 43,300 의창법당 178,390
의창법당 6,990 의창법당 58,500

익산

고광석 10,360 허지 49,920

일산

일산법당 70,670 일산법당 414,620

장유

장유법당 27,290 장유법당 6,440 장유
법당 56,330

전주

전주법당 463,300

정관

정관법당 134,410

제주

제주법당 50,300 제주법당 71,440 제
주법당 103,870

제천

제천법당 187,030

종로

김은희 25,710 이선희 23,420

중랑

중랑법당 89,030

진주

진주법당 671,130 진주법당 748,770

진해

진해법당 114,030

창원

창원법당 73,390

처인

처인법당 66,190

천안

천안법당 195,860

청원

청원법당 200,270

청주

청주법당 331,850

춘천

춘천법당 336,600 춘천법당 49,230

대전

대전법당 138,200 대전법당 37,000

통영

통영법당 147,410 통영법당 122,200

파주

파주법당 15,300 파주법당 36,420 파
주법당 13,000

평택

평택법당 86,870

포천

포천법당 184,840

포항덕산

포항덕산법당 183,750 포항덕산법당
284,630

포항양덕

포항양덕법당 117,950

하동

하동법당 56,540

해운대

해운대법당 265,210 해운대법당
543,980

화명

화명법당 375,600 화명법당 135,650

흥덕

흥덕법당 219,150 흥덕법당 338,060

기타

10월대지저금통 75,360 고대사대부중
246,590 김미숙 32,050 김승주 21,040
김정순 20,000 나경화 23,860 돼지저
금통 33,240 박동원 50,080 북한동
기 10,050 삼성중학교 374,450 서정영
35,290 신재은 44,110 오재환 15,960
원나눔 337,510 원선호 14,500 유상봉
37,500 유진명 35,870 유현주 56,110
이상숙 35,500 이상은 20,550 이한수
61,140 조대영 140,940 주경미 15,140
ATM입금 47,380

거리모금 현황

(2016년 1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강동 348,060 강릉 216,000 강
서 510,990 강화 169,610 거리모
금 110,520 거리모금 275,310 거
제 1,315,200 거창 148,770 경
기광주 299,010 경산 395,270 경
주 1,354,190 계룡 389,960 고성
272,060 공주 22,000 관악 468,680
관평 200,400 광명 981,660 광
주 951,660 구로 493,410 구리

388,210 구미 956,090 군포 735,040
권선 329,690 금정1,102,950 기
장 348,890 기흥 465,200 길
벗 8,484,717 김천 431,880 김포
378,290 김해 960,240 남산 333,920
남양주 500,890 내서 535,670 노
원 1,275,880 달성 297,110 당
진 298,870 대구 5,663,630 대
연 557,420 대전 1,624,770 덕양
160,600 도봉 13,600 도봉703,150
동대문 267,200 동래 2,195,310
동작 107,250 동해 252,540 마
산 2,280,160 마포 182,000 목포
574,080 문경 232,000 밀양 136,600
반여 198,000 방어 302,890 보은
76,300 부사 327,920 부천 853,270
부평 724,030 분당 1,269,310 사천
622,841 사하 552,020 상주 151,440
서면 1,741,900 서산 429,020 서
천 152,010 서초 2,469,730 서
현 1,297,120 성동 330,800 성
북 313,760 성서 1,258,480 세종
416,200 송도 454,760 송파 152,370
송천 1,736,690 수원 1,726,360 수
정 2,699,620 순천 311,100 시흥
601,110 신서 90,370 안동 358,500
안산 800,840 안산센터 151,220 안
성 309,290 안양 2,116,850 양산
961,800 양천 228,710 양평 557,330
연양 132,740 여수 178,100 영등포
258,850 영주 493,780 영진 121,400
영통 693,320 옥곡 429,330 왜관
153,800 용산 41,000 용인745,860 울
산 795,360 원주 642,410 은평 75,700
음성 250,840 의정부 340,670 의창
681,170 익산 111,980 인천 659,150
일산 1,124,290 장수 212,300 장
유 368,420 전주 286,000 정관
487,060 정읍 405,050 정토 34,100
정토 221,910 정토 568,570 제주
101,620 제천 679,810 종각 271,510
진주 2,226,760 진해 388,520 창
원 1,855,390 처인 799,780 천
안 898,910 청주 180,130 춘천
151,000 충주 303,480 태전 640,400
통영 489,140 파주 284,010 평택
1,270,870 포천 404,290 포함덕
산 944,350 포함양덕 1,103,160 함
안 365,350 해운대 1,389,870 홍성
223,520 화명 646,240 화봉 237,490
회향식모금 2,186,680 흥덕 336,820
JTS거리모금 100,000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해외 자원봉사를 경험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께해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 의료, 언어, 교육 등

국내 자원 봉사에 함께하세요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32

2017 JAN-FEB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회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하세요

한국JTS 네이버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JTS에서는 재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S의 생각

국가, 민족, 종교를 넘어서 먼저 해야 할 일
하나,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둘, 아픈 사람은 치료 받아야 합니다.
셋, 아이들은 제대 배워야 합니다.

손가락은 각각이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듯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임을 알았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JTS가 되었습니다.



- ❖ 지정하신 출금일에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 출금일에 2회까지 재출금을 시도합니다.
(예: 지정일인 10일에 잔액 부족으로 인출이 안되면, 17일과 25일에 인출을 재시도합니다.)
- ❖ 홈페이지에서 정기후원 신청을 하시면, 후원 가입 신청서를 따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 후원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후원자 등록"을 하시면, 후원내역 변경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사)한국제이티에스 www.jts.or.kr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4746 대표자명 : 최석호
E-mail : cr@jtsint.org FAX : 02) 587-8998 후원문의 : 02) 587-8995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 (서초동)
사단법인 한국제이티에스

0 6 6 5 3